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 08

---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 차례

1. 시절 인연  
별밤 이야기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법정 스님 독서 노트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보현행원품 II
4. 법정 스님 잔소리  
이것은 폐단이다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VII
6. 불일암 구석구석  
산중에 비 오면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보름달 기도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대구 경남 광주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 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쓰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8월 1일 발행, 통권 318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1. 시절 인연

### 별밤 이야기

지난밤에는 자다가 깨어 바깥바람을 쏘이고 싶어 나갔다가, 밤하늘에 무수히 돌아난 별들을 바라보면서 황홀한 시간을 가졌었다. 별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무변광대한 우주와 그 신비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밤하늘에 이런 별과 달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아득할까. 우리 마음속에도 저마다 은밀한 ☆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 삶 또한 막막하고 황량할 것이다.

산에 들어오기 전, 한 관상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문득 떠오르곤 한다. 무슨 일로 친구 집에 들렀었는데 용한 관상가가 왔다고 친구의 어머니가 내게 귀뜸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전혀 없어 시큰둥하고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 관상가는 나를 흘깃 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

“학생은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고고하게 살 상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살 거라는 이 말이 그때는 아주 시적詩的으로 들려 기분이 나쁘지 않았었다. 산에 들어와 살면서 밤에 소변을 보러 나가서는 으레 고개를 들어 북두의 성좌에 눈길을 보내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주걱처럼 생긴 그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불법을 만나 맑고 고요한 산에서 살게 된 인연에 고마움이 저절로 우러난다.

사철을 두고 밤하늘에 별은 돈지만 봄밤에는 흐려서 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별빛이 영롱하지만 밤 기온이 차가워 오래 지켜볼 수가 없다. 별을 바라보기에는 여름밤이 제격인데, 초저녁은 별들이 제 빛을 발하지 않다가 한밤중이 되면 영롱하게 드러나 별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여름철 별자리 중에서도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은하를 사이하고 커다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백조자리와 거문고자리, 그리고 독수리자리이다. 거문고자리에서 가장 밝은 1등성은 직녀별이고 은하를 건너 맞은쪽 독수리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 견우별이다.

별자리를 알고 별을 쳐다보는 것과 모르고 바라보는 그 감흥은 전혀 다르다. 꽃 이름을 알고 꽃을 대했을 때와 모르고 대했을 때의 그 느낌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8월 5일, 음력으로는 칠월 칠석, 일 년 내내 은하를 사이에 두고 안타깝게 눈길만 보내다가 오늘 하루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날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절한 마음을 별에 견주어 이야기한 우리 조상들의 정서가, 그 후손인 우리들 가슴에까지 절절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일 년 내내 그리움으로 아위어 가던 이들은 음력으로 칠월 칠석이 되는 날 ‘칠일월七日月’이라는 배를 타고 은하수를 건너 만나게 된다. 그렇지만 비가 내리면 은하의 강물이 불어 배가 뜨지 못해 두 사람을 더욱 안타깝게 한다. 강 언덕에서 직녀가 울고 있는 걸 보고 많은 까치가 날아와 그들의 날개로 하늘의 다리를 놓아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준다고 한다. 칠석 무렵에 까치의 머리털이 빠져 있는 것은 이날 하늘의 다리를 놓느라고 애쓴 때문이라고 옛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하더라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칼릴 지브란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문고 줄이 한 가락에 울리면서도 그 선 자리는 따로따로이듯이, 그와 같은 떨어짐의 사이가 유지되어야 한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현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게으름이 최대의 악덕임은 사랑에도 예외일 수 없다는 교훈을 이 견우와 직녀가 온몸으로 말해 주고 있다.

지난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정한 밤하늘에 황홀하게 돌아난 별들을 나는 고개가 아프도록 쳐다보았다. 장욱진 화백이나 백영수 화백의 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머

리가 뼈뚫하게 가로놓인 아이들은, 지상의 현실이 별이 나 구름, 혹은 날아가는 새를 쳐다보느라고 그리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에 들어와 불을 밝히고 별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지닌 한 친구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그리고 서가에서 별에 대한 책을 펼쳐 들고 별자리를 눈여겨보다가 밖에 나가 은하를 사이한 견우와 직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왔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체트 레이모의 《별밤 365일》(이태여 옮김)을 몇 페이지 읽었다. 이 책 서문에 이런 구절이 실려 있다.

“비록 내가 한 사람의 과학자로 교육을 받았고 이론 천문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하늘에 대한 나의 관심은 과학적이 아니라 주로 심미적이다.

내가 만약 무인도로 쫓겨나 몇 권의 책만을 가지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과학 서적이 아니라 시집이나 자연사自然史에 관한 책일 것이다. 나의 이런 생각은 이 책의 제목에 나타나 있다. 이 제목은 별이 아니라 별밤에 관한 것이다.

내가 그 말들을 쓸 때도 나는 반 고흐의 〈별밤〉이라는 신비한 그림을 연상하고 있었다. 생레미의 하늘에 대한 반 고흐의 상상력은 소용돌이치는 성운, 달 같은 별들, 그리고 해 같은 달로 가득 차 있으며 꿈에서만 볼 수 있는 별밤 속으로 우리들을 깊이 몰아간다.

밤하늘은 인간의 상상력을 흥분시키는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친밀하지만 무한하고, 어두우면서도 밝고, 가깝지만 달려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

별밤을 가까이하라. 한낮에 닳아지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심성을 별밤은 부드러운 눈짓으로 다스려 줄 것이다.

(법정 스님이 1992년 8월에 쓴 글입니다. 견우 직녀 이야기를 조금 줄여 여기 실었습니다.)

##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8월의 선물은 마하트마 간디의 가르침입니다. 40년쯤 전에 법정 스님은 간디의 명상, 《날마다 한 생각》을 읽으며 소중한 대목을 옮겨 적습니다. 그렇게 만든 법정 스님 독서 노트를 덕조 스님이 챙겨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몇 대목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 법정 스님 독서 노트

#### 무소유

무소유란 우리가 오늘 필요치 않은 것을 간직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나무들

나무들은 뜨거운 태양을 받지만 우리에게 시원한 그들을 준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 기본 사고

우리가 진정한 삶을 원한다면 정신의 게으름을 버리고 좀더 기본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매우 단순해질 수 있다.

#### 도둑질

도둑질 않기로 단순히 훔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는 것도 도둑질이다.

####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나를 캐내려면 수천 톤의 흙과 돌을 힘든 노동으로 파내야 한다. 우리는 거짓의 자갈을 제치고 진리의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그런 노력의 몇 분의 일이라도 기울이고 있는가?

#### 힘쓰고 애씀

힘들이고 애쓰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자기 정화가 그것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 속과 밖

속이 참으로 깨끗한 사람은 밖에 불결한 것이 남아 있을 수 없다.

#### 위대함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머리, 곧 지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혼에 달려 있다.

#### 종교

종교는 삶과 떨어진 것이 아니다. 삶 자체를 종교로 보아야 한다. 종교로부터 떨어진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동물의 삶이다.

#### 침묵

참으로 자기를 이겨 내려는 사람이나 일에 몰두한 사람은 말이 적다. 말과 행동은 서로 잘 맞지 않는다. 자연을 보라. 일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한다. 그러나 말은 없다.

진리를 맹세하는 사람은 침묵 지키기를 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탐구자의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습관은 버리자. 내 생애의 순간마다 나는 침묵이 최대의 웅변임을 인식한다. 부득이 말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적게 말하라. 한 마디로 충분할 때는 두 마디를 피하라.

\* 나(법정 스님)의 경험으로는 진정한 침묵은 입만 다문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이 듣기 좋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바깥 소리는 무엇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참으로 침묵의 바다에 잠길 수 있다.

#### 일과 사람

인간은 그의 행동에 따라 어떤 인간인가가 결정된다.

#### 사람들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평화는 인간 세계 속에서 증험될 수 있는 것이지 히말라야 산봉우리에 홀로 있으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 보현행원품 II

7월에 이어 법정 스님이 전하는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따라 갑니다.

둘째 행원은 칭찬여래稱讚如來, 곧 부처님의 덕행을 찬탄함이다.

보현보살이 말한다. “부처님 계신 데마다, 깊고 뛰어난 지혜로써 눈앞에 대하듯 알아보고, 변재천녀辯才天女보다 더 뛰어난 변재로써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찬탄한다.”

이웃의 덕행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험뜯고 홍보기는 쉬워도 칭찬은 어려운 일이다. 우선 마음이 열려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남의 일이 곧 내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라. 이것은 개체인 나로부터 전체인 나로 스스로가 깊어지고 승화되어야 가능하다. 불교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일이다. 자기를 배우는 일은 곧 자기를 비우는 일이다. 자기를 비울 때 모든 것은 비로소 자기가 된다. 이때 개체인 내가 전체인 내가 된다.

셋째 행원은 광수공양廣修供養, 곧 여러 가지를 공양함이다.

모든 공양 중에는 법공양이 으뜸이다.

하나,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는 공양

둘, 이웃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셋, 이웃들을 거두어 주는 공양

넷, 이웃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다섯, 착한 일, 곧 선근善根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여섯,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일곱, 보리심을 떠나지 않는 공양이 법공양이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돌아봐야 한다.

보현보살이 말한다. “온갖 물건으로 공양한 공덕을 잠깐 동안 법공양한 공덕과 비교하면 백천만억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이 세상에 출현케 하는 일이고, 보살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이 참다운 공양이다.”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사실은,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이다. 세상에 있다는 말은 함께 있다는 말이다.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인 나는 ‘나’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와 너’의 ‘나’이거나, ‘나와 그것’이 나이지, 이 밖의 나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나와 너’는 내가 내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비로소 말할 수 있는데, ‘나와 그것’은 나의 온 존재를 기울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인간의 객체적인 경험-지식의 세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인간의 주체적인 체험-인격의 세계이고 지혜의 세계다.”

그러므로 나는 너로 인해 내가 되고 또한 우리가 된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만남에 의해서 눈이 뜨이고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이제 ‘법공양’을 다시 생각해 보자.

사람은 얼마든지 거듭 형성될 수 있다. 종교란 끝없는 개선이고 개혁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다 넓고, 보다 크고, 보다 깊게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산다면, 인생은 너무 보잘것없다. 짐승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

이웃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는다.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짐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일과 남의 일이 결코 무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들이다.

넷째 행원은 참회업장懺悔業障, 곧 지은 허물을 참회함이다.

보현보살이 말한다.

“보살은 스스로 이와 같이 생각하고 다짐한다.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살아오면서 탐내고 성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은 탓으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이 한량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악업에 어떤 형체가 있다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제 몸과 말과 뜻의 청정한 업(행위)으로 법계에 두루 계시는 부처님과 보살들 앞에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으며, 항상 청정한 계율(생활 규범)의 모든 공덕에 머물겠다.’”

참회는 자기반성을 통해 흐려진 마음을 밝히는 일이다. 참괴심慙愧心이 필요하다. 진리를 실현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자신이 빛을 지니고 있어야 이웃을 비출 수 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 나 자신이 어두우면 아무리 밝은 세상이라도 암흑이나 다름없다.

참회란 거둬 태어나고 싶은 몸부림이다.

해탈이란 뭐가? 즐거운 자기 변혁의 상태다.

이와 같이 진정한 참회는 변화된 삶을 뜻한다.

참;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고

회; 다시는 더 되풀이하여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참회를 거치지 않은 발원은 메아리가 없는 헛된 소망이다. 참회로써 묵은 짐을 부러 버릴 때에만 발원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기도란 곧 참회와 발원이다.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 혹은 병을 낫기 위해, 혹은 무엇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염불한다면 그것은 진짜 종교가 아닌, 이기적이고 공리심이다. 종교는 본래 달마 스님이 말한 것처럼 무공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달마 스님이 양 무제와의 문답에서 말했듯이 아무 공덕도 없는 데서 비로소 참공덕이 움튼다는 이런 역설이 진정한 종교의 논리다.

중생 스스로가 자신을 건지는 것이지, 부처님이 중생을 건져 주는 것은 아니다.

참회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고백이다.

지계持戒, 곧 청정한 생활 규범을 지키는 데는 파계가 그림자처럼 따르지만 참회를 계기로 오히려 수행을 심화시킬 수 있다. 역사상 동서고금의 종교인 중에는 이런 정형整形이 많았다.

사람은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워지면 참회하고 발원하라. 자기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릇된 생활 습관을 버려라.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걸 고쳐서 새로워져야 참 인생을 살 수 있다.

천수경 한 귀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죄무자성중심기 심약멸시죄역망 죄망심멸양구공 시즉명 위진참회

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是罪亦忘 罪忘心滅兩俱空 是即名爲眞懺悔

죄는 자성이 없어 한 생각에 일어난다. 그 한 생각이 사라지면 죄도 없어진다. 죄도 없고 생각도 쉬어 이 둘이 함께 공하면, 이를 가리켜 진짜 참회라 한다.

(9월 호로 이어집니다.)

## 4. 법정 스님 잔소리

7월에 시작된 스님 잔소리가 이달까지 이어집니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고 일이 의무일 때 인생은 지옥’이라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남김없이 살아 버리라고 호통칩니다. 8월 더위가 싹 가시는 낡은 특집 법문입니다.

### 이것은 폐단이다

기왕에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할 것!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하지 않고 미용에도 좋아서 살아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이 없는 곳에는 삶도 있을 수 없다. 어떤 일이고 열의를 갖지 않으면 큰일을 해낼 수 없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고 일이 의무일 때 인생은 지옥이다.

같은 일을 가지고도 즐겁게 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은 다르다. 귀찮은 일이다, 피로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그 일을 귀찮고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흥미부터 잃고 머리 무거워하고 고통스런 일을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같은 정신 상태가 곧 고통과 괴로움이지 실제로 일에 당해 보면 육체상의 고통이나 괴로움이 그다지 큰 것은 아니다.

다정한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10리 길도 멀지 않다. 그러나 자기 싫은 길은 5리 길도 100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진다.

우리가 좋아하는 선의 특색은 현재를 최대한 사는 데 있다. 그럼 선이란 무엇인가? 순수한 집중과 몰입이다. 순수한 집중과 몰입을 통해 자기를 마음껏 살리는 것이다. 진실한 자기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자기를 잊는다. 즉, 무아의 경지, 창조적 망각이다. 자기를 잊을 때 모든 것은 비로소 자기가 된다.

어떤 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다.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곧 자기를 배움이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림이다.

자기를 잊어버림은 자기를 텅 비우는 일.

자기를 텅 비울 때 비로소 체험의 세계와 하나가 되어 타인이나 객관적인 사물과 대립하지 않고 해탈한 자기를 알게 된다.“

팽이가 잘 돌고 있을 때는 한 지점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기 동 중에 정이 있고, 즉 움직임 속에 고요가 있고 정 중에 동, 즉 고요 속에 끝없는 활동이 있다. 사람이 일 그 자체가 되어 순수하게 몰입하여 지속하고 있을 때는 자신도 사물도 의식하지 않는 법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매의 경지라고 한다. 선정의 경지라고도 한다. 알차게 살아 있는 순간이다. 이때 잔잔한 기쁨과 가사의 염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 나온다. 살아 있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진짜로 살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일을 할 때는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그 일을 원만히 성취할 수 없다. 육신의 힘과 몸의 지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혼도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성서에는 이런 귀절이 있다.

“네 손이 찾아하는 일을 너의 온 힘을 다하여 하라.”

영육이 하나가 된 사람이라야 일을 통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려는 경향은 잘못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치우치고 수행자들은 영혼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폐단이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경지, 이런 때 일이나 삶에 그릇된 실수란 없다. 이게 순수한 기도의 경지이고 선의 경지이며 삼매의 경지다.

(스님 잔소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호로 이어집니다.)

##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VII

### 마침내 해탈 장자를 만나다

지난 7월 호에 자제성에서 만난 미가 장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주림住林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곳에 해탈 장자解脫長者가 산다. 그에게 가서 물어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행을 이루며

어떻게 보살행을 모으며

어떻게 보살행을 생각하는가?

우리는 미가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한 뒤 주림 마을을 향했다. 얼마나 가야 할까?. 우리가 그곳에 도착한 것은 자제성을 떠난 지 12년이 되는 해였다. 그 멀고 먼 길에서 선재동자는 보살의 걸림 없는 지혜 다라니의 광명으로 장엄한 문을 생각하면서 보살들의 말 씀 바다 문에 깊이 들어갔다.

보살들이 모든 중생을 아는 미세한 방편문을 기억하고

보살들의 청정한 마음의 문을 관찰하고

보살들의 선근 광명문을 성취하고

보살들의 중생 교화문을 깨끗이 다스렸다.

보살들의 중생을 거두어 주는 지혜의 문을 밝히고

보살들의 광대한 지요문志樂門을 견고히 하고

보살들이 수승한 지요문에 머물고

보살들의 갖가지로 믿고 이해하는 문을 깨끗이 다스리고

보살들의 한량없이 착한 마음의 문을 생각했다.

12년이 흘러갔지만 선재의 서원은 견고하여 고달픈 생각

이 없었다. 갑옷과 투구로 스스로 무장해 정진하는 깊은 마음을 물리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굳은 신심을 갖추어 마음이 견고하기가 마치 금강이나 나라연那羅延과 같아서 아무도 파괴할 수 없었다.

여러 선지식의 가르침을 지녀 어떤 경우에도 깨뜨릴 수 없는 지혜를 얻었고, 넓은 문이 청정해 행하는 데 걸림이 없었다. 지혜의 광명이 원만해 모든 것을 두루 비추고, 모든 지위의 총지總持 광명을 두루 갖추어 법계의 갖가지 차별을 알았다.

의지함도 머무름도 없어 평등해 돌이 없고, 자성이 청정해 두루 장엄하며, 행하는 일마다 구경竟荒에 이르렀고, 지혜가 청정해 모든 집착을 떠났다.

시방十方의 차별법을 알아 지혜가 걸림이 없으며,

시방의 차별처에 갈지라도 몸이 고달프지 않으며,

시방의 차별업을 다 분명히 알았다.

시방의 차별불佛을 모두 보고,

시방의 차별시時에 깊이 들어가며,

청정한 미묘법이 마음에 가득 차고,

넓은 지혜의 삼매로 마음을 밝게 비추었다.

마음이 항상 평등한 경계에 들어 여래의 지혜를 비추고,

온갖 지혜의 흐름이 언제나 계속되어 끊어짐이 없으며,

몸과 마음이 불법을 떠나지 않았다.

부처님의 신기한 힘을 입고,

여래의 광명으로 비추며,

큰 원을 성취해 서원의 몸이 모든 세계에 두루 하고,

법계가 다 그 몸에 두루 들어갔다.

이렇게 12년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주림성住林城에 이르러 해탈 장자를 만나게 되었다. 선재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서서 합장하면서 말했다.

(해탈 장자를 만난 선재동자와 우리 일행의 이야기, 9월 호에 이어집니다.)

## 6. 불일암 구석구석



사진 덕조

### 산중에 비 오면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법구경》

장마가 갠 뒤 무성하게 자란 풀을 낮으로 베다가 풀밭에 가려진 커다란 호박을 보았을 때, 그야말로 이거 웬 호박이냐는 경우도 살아 가는 기쁨이다. 산 너머에서 우르렁거리는 천둥소리를 듣고 뜰에 나가 비 설거지를 하고 나자, 금세 까맣게 휘몰아 오는 소나기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느긋해진다. 소나기가 지나간 뒤 생기에 차서 너울거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일 또한 즐겁다. (1982년)

##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 보름달 기도

둥근달을 보니  
내 마음도 둥글어지고  
마음이 둥글어지니  
나의 삶도 금방 둥글어지네

몸속까지 스며든  
달빛에 취해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노래를 하고

온 우주가 밝아지니  
나의 기도 또한 밝아져서  
웃음이 출렁이고  
또 출렁이고

##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법정 스님의 저서를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법정 스님의 저서 20권을 전자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업로드된 저서는 <무소유> <영혼의 모음> <서 있는 사람들> <산방한담> <물소리 바람소리> <텅 빈 충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버리고 떠나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오두막 편지> <홀로 사는 즐거움> <맑고 향기롭게> <인도기행> <진리의 말씀> <숫타니파타> <달이 일천 강에 비치리> <말과 침묵>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 <아름다운 마무리> <산에는 꽃이 피네> 입니다.

저서를 읽으려면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후원하고 계시는 회원님의 홈페이지 재가입시에는 후원금이 중복으로 인출되지 않도록 확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 전자책을 통해 회원님 저마다 맑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밀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럿이 모여 하는 조리 활동은 못 하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생태 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생태 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상사를 자신의 화단처럼 가꾸고 꾸미는 일에 뜻을 함께하실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법정 스님의 새 책 <진리와 자유의 길> 출간

'맑고 향기롭게'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정 스님의 미발표 유고를 출판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1년 동안 승광사 수련원장으로 계시며, 수련생을 위해 불교의 핵심 내용을 집필한 친필 원고입니다. 35년 만에 처음 출간되는 이 책에서 법정 스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와 그 실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덕조 스님은 출간 의미를 "부처님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신타르타는 생로병사의 운명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자 진리의 길을 탐구했고 깨달음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되신 뒤에는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 출가한 뒤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했습니다. 스님의 무소유는 진리를 실천해 자유인으로 사는 한 방법이었고 이 책은 모든 이웃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법정 스님의 길라잡이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불교 출현의 역사적 사실과 초기 불교의 특징, 보살행, 불교 교법을 친절하게 설명한 뒤 선의 역사와 사상, 좌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읽기 쉬운 책과 배우는 책이라는 두 가지 성격과 교양과 수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정 스님이 안 계신 지금, 맑고 향기롭게 회원과 길상사 신도, 나아가 불자들이 법정 스님을 그리워한다면 이런 가르침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의 인쇄 수익금은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기금으로 사용되어 우리 사회를 더 맑고 더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 8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4일(수)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책읽기 소모임 : 격주 화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모자 뜨기 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우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보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 9. 가난한 절

###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 8월 7일(토) /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도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인터넷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 백중 아미타기도 및 백중 49재(천도제)

장소 : 극락전 / 시간 : 오전 9시 50분

4재	8월 1일 선망조상을 위한 천도제
5재	8월 8일 반려동물을 위한 조축
6재	8월 15일 선망조상을 위한 천도제
막재	8월 22일 선망조상을 위한 천도제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영가 지옷 접수받습니다. 종무소에서 접수 후, 영단 옆에 마련된 함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영가 지옷은 막재 때 소전해 드립니다.

**2022년 수능 입시기도 입재** 일시 : 8월 11일(수) /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15만 원(합동 천도제 포함)/수능기도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백중 가사불사 모연** 불기 2565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신축년 하안거 백중기도 기간에 승보공양의 하나인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 회향 : 2021년 8월 22일(백중기도 회향일) / 동참금 : 5만 원 이상 자울 보시(동참자 축원) / 문의 및 접수 : 02)3672-5945 / 입금 계좌 : 140-003-875653(신한은행, 길상사)

### 8월의 길상사 정기법회 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백중4재	8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8월 7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백중 5재	8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8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칠석기도	8월 1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6재	8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막재	8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8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8월 25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8월 3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지장전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